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17>

JCCT 2022-9-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 변화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

Effects of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이성은*

Lee Sungeun*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관계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7,20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 변화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 및 친구와의 관계가 떨어진 경우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요어 : 노인, 코로나19, 사회관계,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on life satisfaction and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This study utilized 2021 Social Survey data and 7,203 older persons aged over 65 years were analy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for the analyses and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was tested using bootstrapping methods. Study findings showed that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That is, those who experienced increasing distance from neighbors and friends reported low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Also, leisure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on life satisfact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various interventions are needed to prevent a decrease of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in times during which social distancing can be necessary like COVID-19 pandemic.

Key words : Older People, COVID-19, Social Relations, Leisur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정회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4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31일

Received: July 4, 2022 / Revised: August 10, 2022

Accepted: August 31, 2022

*Corresponding Author: lees@pusan.ac.kr

Dep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1. 서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2년 기준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2]. 특히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관계망이 넓지 못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생활상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의 죽음, 자녀의 독립, 은퇴 등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러한 생애 사건들에 대처하는데 있어 사회적 관계는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한다[4]. 즉 사회적 관계망은 노년기의 삶을 안정되게 보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식적 기관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망과 같은 공식적 관계망보다는 친구 등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 노년기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5].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친구 및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인 관계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6].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는 관심사를 공유하기 쉽고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한 집단으로서 노인에게 유용한 지지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7].

한편 노인에게 있어 여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사회,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8]. 여가촉진모형(leisure facilitators model)에 의하면 여가촉진요인은 여가참여를 장려하거나 강화하고 여가에 대한 선호를 형성 또는 촉진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촉진요인 가운데 대인적 촉진요인으로 여가참여를 강화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들 수 있다[9][10].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접촉의 제한은 여가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관계의 변화는 노인의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이 홀로 수행하는 여가유형을 제외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은 타인과의 교류를 요구하며 이러한 여가활동의 수행에는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며[8],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여가활동을 더욱 촉진시키고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또한 친구/지역사회 관계의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이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2].

이러한 노인의 여가활동은 주관적인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또한 여가만족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의 증진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1][15]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여가만족,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인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였으며[16],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료나 친구와의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운동과 같은 신체적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16], 이전에 참여했던 취미 프로그램이나 실외 공간을 활용하는 여가활동 등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특히 복지관과 같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의 장으로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무료함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자녀와의 통화와 같은 비대면 만남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복지관이나 노인정과 같은 시설을 통한 대면 만남의 경우는 감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17] 노인들에게 그 변화가 더욱 크게 경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 균열을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18].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 노인의 심리, 정서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19],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 횟수가 줄어든 것은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의 사회접촉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인 접촉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21].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어 [22] 사회적 관계 요인의 감소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므로[23] 코로나로 인한 변화와 삶의 영역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이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실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어떤 기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여가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이다. 2021년 사회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만 13세 이상 국민으로[24], 본 연구는 전국적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사회조사 자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 사회조사 자료에서 분석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노인인 관련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총 7,203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 개인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인지적인 판단으로 정의된다[25].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사회조사 항목 중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만족한다 1점부터 매우 불만족한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여가만족도이다. 여가만족도는 선택한 여가활동의 수행에서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만족을 통해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긍정적 경험을 의미한다[26]. 본 연구에서 여가만족도는 사회조사 항목 중 평소 여가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만족한다 1점부터 매우 불만족한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관계로 사회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로 구성하였다. 사회관계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 변화 여부로 정의되며 사회조사 항목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웃, 그리고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사회관계의 변화는 관계가 이전보다 멀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따라서 문항에 대해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한 경우 관계에 변화가 있음(1), 그 외 관계가 가까워졌거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관계의 변화가 없음(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소득만족도, 지역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만 연령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0부터 대학원 박사과정 7로 구성되었다. 소득의 경우 소득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 1점부터 매우 불만족한다 5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있음 1, 기타 0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의 경우 동부 1, 읍면부 0으로 구분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SAS 9.4 및 SPSS 25를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수인 사회관계,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전반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관계,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27]. 그리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영향력 보다 감소해야 한다[27].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지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는 모두 2 미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28].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29]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 표본 통계치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방법이다[30].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노인 7,203명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은 다음 표 1에 제시되었다.

분석대상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6세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성이 47.4%, 여성이 52.6%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노인이 66.0%, 기타의 경우가 34.0%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평균 2.0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만족도의 경우 평균 3.4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부로 응답한 노인이 60.3%, 읍면부로 응답한 노인이 39.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사회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노인이 48.1%였으며,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노인은 46.3%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의 경우 평균 2.9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경우 평균 3.1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 및 주요 변수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and major study variables

변수		Mean(SD)	%
통제변수	연령	73.6(6.7)	
	성별	남성	47.4
		여성	52.6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66.0
		기타	34.0
	교육수준	2.0(1.4)	
	소득만족도	2.6(1.0)	
	거주지역	동부	60.3
읍면부		39.7	
독립변수	사회관계 변화	이웃	48.1
		친구	46.3
매개변수	여가만족도	2.9(8)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3.1(9)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인 사회관계 변화,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among major study variables

변수	사회관계 변화(이웃)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사회관계 변화(이웃)	1		
여가만족도	-.064***	1	
삶의 만족도	-.078***	.408***	1

***p<.001

먼저 독립변수인 이웃과의 관계 변화는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64, p<.001$). 즉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변화는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078, p<.001$)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408, p<.001$)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major study variables

변수	사회관계 변화(친구)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사회관계 변화(친구)	1		
여가만족도	-.069***	1	
삶의 만족도	-.078***	.408***	1

*** $p<.001$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 변화,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친구와의 관계 변화는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69, p<.001$). 즉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는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078, p<.001$)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결과는 표 4-표 5에 제시되었다. 모델 1에서는 독립변수인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모델 1의 경우 이웃과의 관계 변화는 여가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s of change of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s o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연령	-.003	-.026*	.0008	.006	.002	.014
	성별	-.019	-.011	-.047	-.026*	-.040	-.022
	배우자 유무	.020	.011	.086	.045***	.079	.042***
	교육 수준	.093	.158***	.070	.111***	.038	.060***
	소득 만족도	.263	.300***	.298	.317***	.208	.221***
	거주 지역	-.013	-.008	-.094	-.051*	-.090	-.049*
독립 변수	이웃과의 관계 변화	-.101	-.060*	-.121	-.067*	-.087	-.048*
매개 변수	여가 만족도					.343	.320***
R ²		.1355		.1344		.2228	
F		161.16***		159.54***		257.72***	

* $p<.05$, *** $p<.001$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만족도가 여가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2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 변화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소득만족도,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 경우 여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변화와 여가만족도를 모델에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3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 변화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 2에서보다 모델 3에서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가 이웃과의 관계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27].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소득만족도, 거주지역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을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 방법[29]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만족도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

Table 5. Effects of change of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s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변수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이웃과의 관계 변화->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0347	.0065	-.0476	-.0224

4)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결과는 표 6-표 7에 제시되었다. 모델 1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 변화는 여가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교육수준과 소득만족도가 여가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인 모델 2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6. Effects of change of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o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연령	-.003	-.025	.001	.007	.002	.015
	성별	-.018	-.011	-.046	-.025*	-.040	-.022
	배우자 유무	.023	.013	.089	.047***	.081	.043***
	교육수준	.092	.157***	.069	.109***	.037	.059***
	소득만족도	.263	.230***	.298	.316***	.207	.220***
	거주지역	-.017	-.010	-.098	-.054*	-.093	-.050*
독립변수	이웃과의 관계변화	-.096	-.057*	-.115	-.064*	-.082	-.045*
매개변수	여가만족도					.344	.320***
R ²		.1352		.1339		.2225	
F		160.72***		158.89***		257.34***	

*p<.05, ***p<.001

먼저 친구와의 관계 변화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소득만족도, 거주지역이 모델 1에서와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 변화와 여가만족도를 모델에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3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먼저 친구와의 관계 변화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 2에서보다 모델 3에서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가 친구와의 관계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27].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소득만족도, 거주지역이 모델 2에서와 동일한 방향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랩 방법[29]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만족도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

Table 7. Effects of change of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변수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친구와의 관계 변화->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0332	.0066	-.0463	-.0204

IV.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노인의 사회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사회관계의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 변화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만족도는 사회관계의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대상 노인의 48.1%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을 경험하였으며, 46.3%가 친구와의 관계가 떨어진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노인이 사회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 친구는 노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웃과 친구 간의 연락빈도는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31], 친구와의 연락 횟수가 많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2]. 본 연구에서도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소원해짐을 경험한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삶에 있어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관계의 변화가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역사회 관계에 있어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이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12], 노인인 가구의 경우 여가동반자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여가를 할 때 여가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웃이나 친구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연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 노인이 여가활동의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의 삶에 있어 사회적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킴과 이러한 관계에서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함을 밝힘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여가활동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 및 확충과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종 질병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며 특히 감염병 발생시 노인들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며 이들의 여가활동 및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은 크다. 따라서 노인들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가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지역에 사는 이웃의 경우 노인들 사이에 안부 확인 및 말벗, 다양한 서비스 정보 전달 등 활발한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34] 주변에 사는 노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가활동 참여 및 유지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웃이나 친구와 같은 지지체계를 넘어서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전공 지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지역사회 중심의 인적자본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관계의 단절을 방지하고 고독사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35].

한편으로는 사회적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여가활동이 개발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인가구 중고령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 보다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이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주로 형성해왔던 노인들이 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만드는 방식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따라서 노인들이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취미활동을 통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소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격리 상황에서 산책과 같이 사회적 접촉의 위험을 줄이면서 가볍게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여가활동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거주지 주변의 녹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37]를 고려할 때 팬데믹 상황에서 여가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의

조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대면 접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요구된다. 문자메시지 및 SNS 활용 역량이 높은 노인의 경우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친구, 이웃과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의 빈도가 높고 그 결과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8]. 따라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비대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복지관의 경우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교육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는데[39] 이러한 비대면 방식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여가활동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및 건강문제 확인 등의 전화중재를 실시한 결과 독거노인의 우울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0]. 따라서 노인 상호간 전화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회관계의 변화는 여가만족도의 저하를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염병의 확산과 같이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재난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활성화와 여가활동의 다양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 인해 제한된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사회관계가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에 한정되었으며 여가만족이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어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을 가지므로 추후 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포괄하여 사회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여가활동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회관계의 변화가 어떠한 유형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사회관계의 변화와 다양한 여가활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년도의 자료를 사용한 횡단연구임으로 인해 사회관계,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다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관계와 여가만족, 삶의 만족의 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 종단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1.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 [2] S.M. Lee, S.Y. Mun, Y.S. Moon, H.Y.S. Kim, and N.H. Kim, "A Study 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Online Learning Caused by COVID-19: A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Vol. 16, No. 1, pp. 169-199. March 2021. DOI <https://doi.org/10.21329/khrd.2021.16.1.169>
- [3] G.E. Ba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the Prolonged COVID-19 on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Focusing on Users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7, No. 1, pp. 1-13. February 2022. DOI <https://doi.org/10.21097/ksw.2022.2.17.1.1>
- [4] K.S. Park, "Informal Social Ties of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34, No. 3, pp. 621-647. September 2000.
- [5] Y.H. Chio,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Size, Contact Frequenc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the Elderly Depression", *Songdo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11, No. 2, pp. 81-116. August 2018.
- [6] G.A. Oh, J.H. Lee, "The Effect of Older Adults' Social Network of Neighbors and Friends on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33, No. 2, pp. 317-336. May 2022. DOI <http://dx.doi.org/10.7856/kjcls.2022.33.2.317>
- [7] B.I. Rho, S.H. Mo, "The Effect of Levels and Dimensions of Social Support on Geriatric Depression", Vol. 27, No. 1, pp. 53-69.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February 2007.
- [8] Y.S. Yoo,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Satisfaction on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6, No. 2, pp. 217-225. February 2022. DOI <http://dx.doi.org/10.21184/jkeia.2022.2.16.2.217>
- [9] Y.S. Kim, H. Lee, "A Study of Developing The 'Leisure Participation Condition Type' for Integrating Leisure Constraints and Facilitator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 23, No. 2, pp. 261-277. February 2011.
- [10] L.A. Raymore,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 1, March 2002. DOI <http://doi.org/10.1080/00222216.2002.11949959>
- [11] Y.W. Kim, Y.S. Yoon,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aekwondo Trained Elderly's Social Support, Self-respect and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40, No. 1, pp. 421-433. May 2010. DOI <http://dx.doi.org/10.51979/KSSLS.2010.05.40.421>
- [12] J.S. Ahn, K.U. Lim,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and continuity intention of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31, No. 2, pp. 113 - 125. February 2017. DOI <http://dx.doi.org/10.21298/IJTHR.2017.02.31.2.113>
- [13] J.C. An, W.K. Lim, "Effects of the Social Activity and Leisure Activity of the Rural Elderly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4, pp. 189-210. April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4.189>
- [14] J.Y. Son, "A Effect of Leisure Participating older adults Leisure Satisfaction as a Leisure Participa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9, pp. 536-548. September 2017.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9.536>
- [15] K. Kim, S.H. Jun,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Leisure Satisfaction, Psychological Happiness and Participatory Behavior of the Elderly Participation in Swimming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1, No. 3, pp. 53-62. June 2012.
- [16] H.R. Shin, T.Y. Yun, S.K. Kim, and Y.S. Kim, "An Exploratory Study on Changes in Daily Life of the Elderly amid COVID-19 -Focusing on Technology Use and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Elderly Welf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5, No. 4, pp. 207-232. December 2020. DOI

- <https://doi.org/10.21194/kjgsw.75.4.202012.207>
- [17]Y.B. Kim, "COVID-19 Pandemic and Changes in Level of Social Activities of Elderly : Analysis on the Data from Chuncheon Area", *Korean Regional Sociology*, Vol. 22, No. 3, pp. 5-29. December 2021. DOI <https://doi.org/10.35175/KRS.2021.22.3.5>
- [18]E.M. Kim, "Changes i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Vol. 12, No. 4, pp. 2001-2016. August 2021.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2.4.142>
- [19]K.H. Youn, J.Y. Lee, and S.I. Par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the With Corona Era: Focusing on the Users of Senior Welfare Centers i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Academy of Care Management*, Vol. 42, pp. 5-30. March 2022. DOI <https://doi.org/10.22589/kaocm.2022.42.5>
- [20]D.J. Kim, "Effect of Changes in Daily Life and Psychological Factors Due to COVID-19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6, No. 3, pp. 187-196. April 2022.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2.4.16.3.187>
- [21]J.E. Kim, "Influence of Social Contact, Depression and Anxiety on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12, pp. 870-878. December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12.870>
- [22]H.J. Jun, and Y.J. Jeong, "Factors Contributing to Depression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 During COVID-19: Using Data from the 2020 Community Health Surve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24, No. 1, pp. 55-64. February 2022.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2.24.1.55>
- [23]K.S. Ko, and J.H.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Life Changes due to COVID-19 on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79, pp. 81-109. November 2021. DOI <https://doi.org/10.15300/jcw.2021.79.4.81>
- [24]Statistis Korea, 2021 Social Survey Results (Welfare·Social Participation·Leisure·Income And Consumption·Labor),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aSeq=415115&pageNo=1&rowNum=10&amSeq=&sTarget=title&sTxt=. 2021
- [25]J.Y. Jang, J.Y. Lee, "The Relation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Meaning, Living a Calling, Life Meaning,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6, No. 3, pp. 123-146. February 2014.
- [26]S.R. Park, Y.J. Ha, E.K. Chung, H.K. Sohn, Y.W. Sohn, "The Effects of Work Flow and Leisure Satisfaction on Employees' Affect: Focus on Sleep Quality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5, No. 1, pp. 125-145. February 2012.
- [27]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January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8]P.D. Allison,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and Application", SAS Institute Inc, 1999.
- [29]A.F. Hayes,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Vol. 76 No. 4, pp. 408-420, December 2009. DOI <https://doi.org/10.1080/03637750903310360>
- [30]W.M. Hur, "How Researchers Estimate Indirect Effect using Bootstrapping : The Case of Simple, Multiple, and Double Mediation", *Journal of Corporation and Innovation*, Vol. 6. No. 3. pp. 43-59. December 2013.
- [31]S.Y. Lee, and E.J. Kim, "The Social Support Patterns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Friends and Neighbo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56, pp. 137-164, June 2012. DOI <https://doi.org/10.21194/kjgsw.56.201206.137>
- [32]H.K. Kim, Y.S. Park, and Y.M. Song,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isure Activity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 36, No. 1, pp. 1-15. March 2012.
- [33]H.S. Hwang, and Y.S. Lee,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Type of Leisure Companion on Leisure Satisfaction in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41, No. 4, pp. 88-107. December 2021. DOI <https://doi.org/10.15709/hswr.2021.41.4.88>

- [34]H.B. Seo, "Examining the Potential Role of Informal Neighborhood Networks of Eld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40, No. 1, pp. 297-330. March 2020.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20.40.1.297>
- [35]S.K. Choi,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nkage Plan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Donation Bank Caring Activities with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for the Prevention of Lonely Death in the Elderly",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 11-16. February 2021.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1.7.1.11>
- [36]E.N. Kang, H.J. Kim, and Y.S. Kim, "Leisure Activity Typ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dle-Aged People Living Alon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7, No. 2, pp. 184-215. June 2017.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184>
- [37]S. Le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f the Urban Elderly",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 371-377. November 2020.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0.6.4.371>
- [38]C.W. Jung, and H.J. Choi, "The Association between Ability to Use Text Message or S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Social Contact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Household Composit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42, No. 2, pp. 201-221. April 2022. DOI <https://doi.org/10.31888/JKGS.2022.42.2.201>
- [39]B.S. You, and K.W. Lee, "Change in Ways of Providing Services at the Senior Welfare Center Based on COVID-19 Coping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30, No. 1, pp. 21-36. June 2021. DOI <http://dx.doi.org/10.25280/kjrg.30.1.2>
- [40]S.A. Park, "The Effect of Telephone Intervention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during the COVID-19",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3, pp. 175-182. May 2022.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175>